

PEOPLE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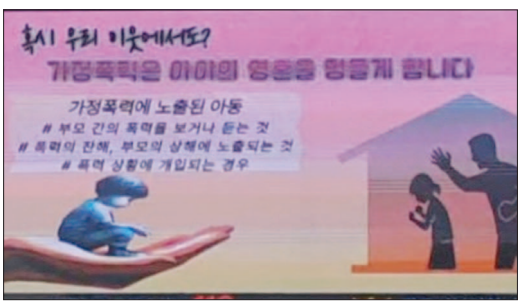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영호남 공동 학술대회 ‘성료’

한국거버넌스학회(회장 김용민, 송원대학교 교수)은 최근 ‘이제는 지방시대! 교육자치·친환경에너지·지역발전’을 주제로 국립 나주술체원에서 한국정부학회와 함께 영호남 공동 학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도교육청, 국가철도공단, 보훈교육연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광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자원순환센터, 전남대학교 공공행정연구소 등 13개 기관이 주최하고 후원하는 학술대회였다.

학술대회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교육대전환시대, 새로운 교육패러다임 글로벌 교육’으로 기조연설했으며, 국가철도공단 세션에서는 광주전남 철도인프라 구축과 ESG 경영 등 다양한 논의를 하는 공론의 장이 됐다.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장은 “지금의 대전환의 시대로 대전환의 시대에 주체가 돼 현대사의 다양한 문제를 공론의 장에서 논의하고 연대하며 해결책을 찾아내고 실천해야 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전문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



광주자치경찰위·서부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맞손’

광주 서부경찰이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28일 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의 하나로 ‘코드아담’ 대상 시찰과의 협업을 통해 범죄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코드아담은 아동 실종사건이 초기 대응 여부가 관건인 점을 토대로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 주체에게 실종아동 등 발생 시 초기발견을 위한 역할과 의무를 부여하는 등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다.

이에 서부경찰은 서구 내 월드컴퓨터, 유스퀘어 광장, 대형마트 등 코드아담 대상시설 내 전광판 등 홍보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아동학대·가정폭력·불법촬영 등 사회악자 대상범죄에 대한 예방 홍보문구를 송출하는 등 다채로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윤용성 기자 yo1404@

“흑산도 홍어, 가까이서 보고 먹는 새로운 경험”

제주 김녕해녀마을 주민 30명 목포 미식관광 즐겨 전남관광재단, 관광두레 진행…“브랜드 가치 키워”

“신선한 흑산도 홍어를 가까이서 보고 먹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남 관광두레 로컬 상품이 휴가철 막바지에 전남을 방문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정성과 깊이를 담은 ‘로컬의 맛’을 선보여 큰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전남관광재단에 따르면 관광두레 지역 협력사업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주민사업체 ‘조아홍’이 최근 목포 관창마을을 1층 라운지에서 ‘게미진 호남 미식 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제주 김녕해녀마을 주민 3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전남관광재단과 조아홍이 목포 대표 여행 플랫폼 ‘관창마을’과 협업해 진행한 특별 프로그램으로,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이

될만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조아홍’은 흑산도 홍어, 반건조 생선, 건어물 등 지역의 신선한 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목포 대표 맛집이자 로컬사업체로 인지도를 높이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곳이다.

‘게미진 호남 미식 이야기’에서 조아홍의 정태연 대표는 현장에서 즉석으로 펼친 ‘홍어해체쇼’와 함께 흑산도 엄마로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단순히 음식을 맛보는 것을 넘어 눈과 귀, 마음까지 사로잡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특히 당일 새벽에 잡아올린 신선한 흑산도 홍어가 조금씩 손질되어 가면서 홍어의 귀한 부위들을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홍어해체쇼’는 관



전남관광재단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통해 육성되고 있는 주민사업체 ‘조아홍’이 최근 목포 관창마을 1층 라운지에서 ‘게미진 호남 미식 이야기’ 행사를 개최했다.

객들에게 진귀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관련 상품의 주문도 이어졌다.

김녕해녀마을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시 목포에 놀러 와서 또 한번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영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남도의 매력적인 미식 관광을 통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대학생 IT 활성화’ 오아시스 해커톤 대회 성황

호남 문제 해결 주제…플로우팀 대상 수상 영예

IT에 관심있는 호남 지역 대학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오아시스 해커톤’ 대회가 지난 26~27일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8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에 따르면 대한민국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광주시가 지원하는 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오아시스 해커톤 대회는 IT에 관심 있는 호남 지역 대학생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개최하는 네트워킹 해커톤 대회로 지난 2020년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교육, 안전, 사회·환경, 관광, 창업 등 호남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AI·ICT 서비스 개발을 주제로 진행됐다. 85명의 학생이 기획, 개발, 디자인 직군으로 구성된 팀을 이뤄 대회에 참가했다.



오아시스 해커톤 대회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대상 1팀(플로우), 최우수상 1팀(LJ20), 우수상 2팀(우아한매들, 남나미), 특별상 3팀(다락, 필로터, Joa) 총 7개의 팀이 850만원의 상금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플로우팀은 로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일리지 기반 상생플랫폼 서비스 ‘백 투 로컬’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오아시스 연합 리더 이유진씨는 “오아시스 대학생 연합은 해커톤 대회에 그치지 않고 호남 지역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

광주공공배달 환승배달 캠페인

안전걸 소장 제1호 캠페이너 위촉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대표이사 김현성, 이하 광주경제일자리재단)은 민생경제연구소 안전걸 소장을 ‘못살겠다! 갈아타자! 환승배달 캠페인’의 제1호 캠페이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안전걸 소장은 오랜기간동안 한국사회의 경제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공공배달 캠페이너로서 활동하게 돼 공공배달업의 유익성과 착한소비의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활발히 운영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주시에서 처음 진행하고 있는 ‘못살겠다! 갈아타자! 환승배달! 캠페인’의 장점을 알리고 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안전걸 소장은 “광주를 시작으로 진행되고 있는 배민독립 릴레이 선언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널리 알려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광주경제일자리재단 김현성 대표이사는 “포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연대를 통해 광주가 디지털 경제시대 명과 암을 챙겨가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전남도, 정보보안·개인정보 보호 능력 강화 교육

전남도는 28일 김대중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정보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진행해 실무적 보안 대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며, 이에 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비해 직원들의 정보보안 의식을 높이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사이버 위협 동향, 사전 예방 조치, 유사시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 분야는 강원철 한국에스지스(SGS Korea) 박사가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유출 사고 시 대응 절차 등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전남도는 이번 교육이 사이버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보안 의식과 실무 능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시판

결론 ▲박병훈(특목브레인심리발달연구소 대표)·백용주씨 장남 현재군, 현원영·이순욱씨 차녀 재륜양=8월 31일(토) 오후 2시 30분, 광주 광천동 웨딩그룹위더스 1층 메리엘룸.

알림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시랑미리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정제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 문제(알코올, 니

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모집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을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상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면,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운세 (음력 7월 26일)

48년생 관재수나 외곽수출 할수 있는 운
60년생 천 번이면 만 번이면 참이라
72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84년생 이동하면 귀인을 만날 수 있겠다
96년생 옳다면 자신을 갖고 행동할 것
51년생 주위 깊은 통찰력이 필요한 시기
63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기가 끼지 않는다
75년생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볼 일이다
87년생 행운이 코앞에 당도했다
99년생 뜻이 굳어 이를 수 있다
54년생 막연하다면 위험에 처해지기 십상
66년생 소문으로 해를 입을 수 있다
78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 된다
90년생 어려웠던 숙제가 풀리리라

57년생 식구가 불어날 좋은 운이라
69년생 넘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81년생 귀하가 찾는 것은 가까운데 있다
93년생 친구들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운

49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61년생 가족들로 인한 경사가 따른다
73년생 감정에 지우치지 말고 실리를 취할 것
85년생 가변적 여길 문제가 아니다
97년생 이성으로 인한 구설수를 조심하라
52년생 친질을 배물면 훗날 이익 얻는다
64년생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즐거움 생긴다
76년생 방도와 해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88년생 활기찬 하루가 될 것이다
55년생 고집은 고집으로 망하는 법
67년생 꼭 만나야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79년생 구설수가 아니면 도난 당할 우려있다
91년생 멀리 있지 않다 가까운 데서 찾으라

58년생 아랫사람의 절실한 부탁이 있을 것이다
70년생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걱정거리 생긴다
82년생 돈을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4년생 고집을 버리고 뒷사람과 대화하라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작명

50년생 곤한 마음을 유지하는게 좋다
62년생 공 들어왔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회
74년생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86년생 마음이 있으나 행하지 못한다
98년생 절교만이 최상의 방법이다
53년생 몸매 충격을 받기 쉬운 날 조심하라
65년생 일을 급히하려 마음을 태우면 안된다
77년생 횡재성 재물과 합 이를 귀인이 온다
89년생 민첩한 손발력이 필요한 지경

56년생 현재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
68년생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 정조가 보인다
80년생 인생에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92년생 이익보다는 친구를 먼저 생각하라

59년생 일치하지 않아 순간 당황할 수도
71년생 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겠다
83년생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을 것이다
95년생 극복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